

우윳값 논쟁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우윳값 논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 여름 생산자와 유업체간 원유기본 가격 협상이 어렵사리 매듭지어졌다. 이와 맞물려 최근 S 유업체가 정부의 물가안정 압박에 못이겨 올해는 일단 1리터 기준 농가 인상분 138원만을 반영한 출고가격을 올렸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들의 반발로 무산위기란 소식이 들린다. 발단은 농협 하나로 마트가 정부의 물가기조에 맞춰 1리터 기준 2,300원에 판매하겠다고 나서부터다. 당초 유통업체들은 S유업체와의 제품가 협상에서 출고가 138원 인상분과 유통 마진(대리점, 유통업체)을 포함해 200원 인상된 1리터 2,350원에 판매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하나로 마트가 2,300원 판매방침을 밝히자 최저가를 표방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자신들도 2,300원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다며 으름장이다. 이는 부메랑으로 공장 출고가 50원 인하 요구로 나타났다. 유업체 입장에서선 농가의 원유가 인상분만을 반영한 출고가마저도 지키지 못한다면 수백억의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농가의 원유가 인상을 빌미로 제품가를 자율적으로 인상해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사뭇 다르다.

현재 농식품부는 ‘우유유통구조 개선위원회’에서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유업체들은 우유유통구조는 낙농가→유업체→대리점→유통업체 4단계로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유통업체들은 건드리면 안된다고 읍소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유

업체들은 대놓고 우유 유통구조 개선은 장관이 뭘 모르고 한 말이라며 불멘소리를 하고 있다.

유업체들은 가공비용과 마진을 포함해 대리점에 출고하지만, 각종 부대비용 인상분도 감수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실상 남는 돈은 얼마 안되고 심지어 적자라는 말까지 서슴치 않는다. 대리점들은 리터당 300~400원을 남기고 유통업체에 넘기지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와 배송료, 기타 경비들을 제하면 자신들도 별반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이고, 유통업체들 또한 우유는 타 제품들의 마진을 30% 수준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항변한다.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요즘의 상황을 바라보면 조금 혼란스럽다. 물가안정도 좋지만 과연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시장논리를 왜곡하는 것이 올바른지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게다가 정부 물가기준에 협조한 유업체에 우선적으로 내년도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을 손실보전용으로 배정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아직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농가들에게 피해로 전가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항상 문제가 불거지면 근본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원유가격 결정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극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원유가 연동제를 못만들어서가 아니라 낙농제도 개혁의 미비에 있다. 제도개편을 통해 낙농가와 유업체의 대등한 거래교섭력이 확보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단박에 해결될 수 있다. 우유 제품가격은 역설적으로 유통업체를 상대로한 유업체의 거래교섭력 확보가 관건이고, 동시에 관촉비를 포함한 거품을 걷어낼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진정한 근본대책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물가에 인질 잡힌 우유가 우리 낙농가를 불모로 삼아 탈출구를 찾을 지 걱정이 앞선다. ㉠

“근본적 낙농제도 개혁을 통해 낙농가와 유업체의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가 우선..”